



7 광령천 학술 탐사

옛 문헌으로 본 광령천

김 영 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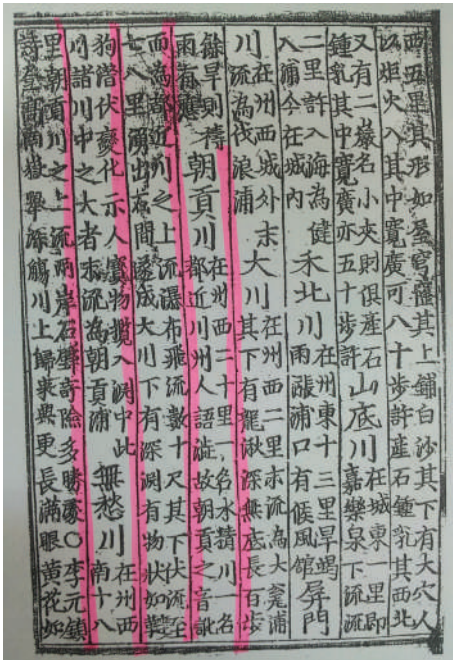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광령천은 한라산 백록담 서북벽에서 발원하여 제주시 해안동, 도평동, 내도동의 서쪽, 애월읍 광령리와 외도동 월대마을의 동쪽을 흐르는 하천으로, 조선시대 문헌에서는 줄곧 도근천(都近川)으로 표기되었다.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은 1530년(중종 25)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¹⁾ 제38권 제주목 산천조에서 확인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보면 도근천은 제주에서 서쪽으로 18리에 있으며, 수정천(水精川) 또는 조공천(朝貢川)이라고도 불린다고 하였다. 도근은 제주도 사람들의 말이 난삽(難澁)하여 조공(朝貢)이란 말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며, 대천의 하류는 도근포(都近浦)라고 일컫는다고 하였다. 아울러 한라산 북쪽에서 흘러나와 바다로 들어가는데, 한라산에서 발원하는 내(川) 중에서는 도근천이 가장 크다고 하였다.

1)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성종 17년(1486)년 간행된 『동국여지승람』을 증보한 것으로, 전라도 항목에 제주목·정의현·대정현으로 나뉘어 제주도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이러한 내용은 17세기 중반 제주에서 편찬된 최초의 읍지인 이원진의 『탐라지』를 비롯하여 18세기 후반의 『제주읍지』 및 『제주·대정·정의읍지』와 19세기 사찬읍지인 이원조의 『탐라지초본』 산천조에도 각각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다.



〈17세기 중엽 편찬된 이원진의 『탐라지』
내 ‘조공천(朝貢川)’에 관한 기록〉

도근천이 수정천이라고 불린 것은 도근천 서쪽 언덕에 수정사(水精寺)가 있었기 때문이다. 수정사는 고려시대 한라산 북쪽 지역을 대표하는 비보사찰로 조선 태종 때까지만 해도 노비 130명을 거느리고 있었던 대사찰이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불우(佛宇)조에는 수정사에 대해서 그 위치에 대해서 명시하고 도근천과 관련하여 고려시대 뛰어난 유학자이자 문장이었던 이세현(李齊賢, 1287~1367)의 해가시(解歌詩)를 인용하였다. 즉 “도근천에 물 막는 독이 무너지면, 수정사 안이 또한 바다가 되리(都近川頽制水坊 水精寺裏亦滄浪)”라는 구절이 그것이다. 이로 보아 수정사는 도근천과 비교적 근접한 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내천의 명칭까지도 절의 이름을 따서 불리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수정천과 아울러 도근천의 또 다른 이칭인 조공천(朝貢川)은 『신증동국여지승람』 〈관방(關防)〉조에 “도근천포구 수전소(水戰所)에서 모든 공납물과 선물(膳物)

이 차례대로 바다를 건넌다”는 것으로 보아 도근천 포구에서 조공선(朝貢船)이 출발한데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관방조〉에는 도근천에는 제주목에서 서쪽 17리에 방호소(防護所)가 있어서 진수(鎭戍)하는 군졸을 두어 지키며, 하류인 도근포에는 수전소(水戰所)가 있어 전선(戰船)이 정박해 있고, 군사가 번갈아서 나누어 지킨다고 하였다. 곧 도근천에는 방호소가 있고, 도근천포에는 수전소가 있었다는 것으로 이 지역이 방어상으로 요지였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도근천의 방호소 설치와 관련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보다 앞서 《조선왕조실록》예종 1년(1469) 행통례원인(行通禮院引儀) 고택(高澤)이 제주의 폐단을 아뢴 상소문²⁾에서 확인된다. 고택의 상소문에 따르면 제주는 사면으로 적의 침입을 받아 방어가 가장 긴요하므로 동쪽의 조천관과 김녕 서쪽의 도근천·애월 등 8곳이 요충지이므로 모두 방호소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고, 그것이 건의대로 시행됨에 따라 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관방조에 도근천 방호소가 기록되게 된 것이다. 이보다 앞선 세종 21년(1439) 《조선왕조실록》의 제주 도안무사 한

2) 《세종실록》 84권, 세종 21년 윤 2월 임오

승순의 보고³⁾에는 도내에 군인이 주둔한 곳은 제주의 동쪽은 김녕과 조천관이고, 서쪽은 도근천과 애월·명월인데 도근천소(都近川所)의 군인은 마병과 보병을 합쳐 144명이라고한 기록도 확인된다.

그러나 1530년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보이던 도근천의 방호소와 도근포의 수전소는 1579년(선조 12)전에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18세기 초 목사로 부임한 이형상의 『남환박물(南宦博物)』과 19세기 헌종 연간 제주목사를 지낸 이원조의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에서 그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남환박물』〈關防〉조에는 제주의 사방 포구에 칼날 같은 돌들이 묶여 서 있어서 배가 정박할 곳이 없고, 화북·조천·애월·명월등의 포구에는 전함(戰艦)이 있었으나 암초가 많아서 운용하기 어려워 모두 훼파되었다고 하였다. 아울러 『탐라지초본』기록을 보면 아래와 같다.

옛날 출항을 하기위해 순풍을 기다리던 항구는 정해진 곳이 없다. 동쪽은 별도포, 어등포, 조천관에서 동풍을 만나 육지로 출항하면 강진, 백도, 관두, 진도 등지에 정박할 수 있고, 서쪽은 도근천, 애월포에서 서풍을 만나 출항하면 어란포, 관두, 진도, 초등에 정박할 수 있다. 선조 기묘년(12년, 1579년) 이후에는 사선(私船)이 마음대로 출입하니 피역자들이 왕왕 배를 타고 육지로 도주하므로, 오직 조천·별도 두 포구에 한하여 출항을 허락한다. (『탐라지초본』舊例〈船禁〉)

곧 『탐라지초본』 구례(舊例)〈선금(船禁)〉조에 따르면 1579년 이전에는 도근포에서 배가 출항하였지만 사선(私船)이 마음대로 오가고 역(役)을 피하고자 하는 자들이 이곳에서 배를 타고 육지로 도망하는 사례가 많아서 조천관과 별도포를 제외하고는 출항을 금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1579년 이후에는 이형상의 『남환박물』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도근포에서의 출항이 금지되면서 방호소와 수전소도 혁파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17세기 중엽 이원진의 『耽羅志』를 비롯하여 1579년 이후에 편찬된 읍지류에는 도근천의 방호소와 수전소에 관한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도근천 주위의 방호소와 수전소는 혁파되었지만 「한라장축」을 포함한 제주 고지도에는 중요하천으로 도근천이 어김없이 그려져 있으며, 도근포 역시 지도에 따라 ‘도근천포(都近川浦)’ 혹은 ‘조공포(朝貢浦)’로 표기되고 있음이 확인된다.⁴⁾

도근천 상류 지역에 대한 지칭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없지만, 이원진의 『탐라지』〈山川〉조 이하 후대의 기록에는 무수천(無愁川)이 도근천(조공천)의 상류로 기록되어 있다. 무수천의 명칭과 관련해서는 18세기 후반 「제주삼읍도총지도」에서 水鐵川(무쇄내)로 표기된 예도 있으나

3) 〈예종실록〉 3권, 예종 1년 2월 갑인

4) 「탐라지도병서」(1709년), 「제주지도」(1700년대), 「제주삼읍도총지도」(1770년대)에는 “도근천포” 표기되었으며, 「호남전도」(1700년대), 「전라남북도여지도」(1700년대), 「팔도지도」(1700년대 후반), 「청구도」(1834년)에는 “조공포”로 기록되어 있다. (이상의 제주관련 고지도는 『제주의 옛지도』(1996년,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내에 수록된 지도를 참고하였다.)

여타의 제주도 고지도에서는 줄곧 ‘無愁川’으로 나타난다.⁶⁾



한라장축



해동지도⁵⁾

또한 무수천은 『탐라지』의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승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원진 목사는 『탐라지』에 무수천 관련 시⁷⁾를 남기기도 하였으며, 이후 1679년 제주안핵검순무어사로 제주에 온 이증(李增) 역시 무수천이 조공천(도근천)의 상류로 양쪽 언덕의 석벽이 기이하고 험해서 많은 구경거리가 있는 곳이라고 하였다.⁸⁾

이상 살펴본 조선시대 읍지류의 문헌기록이나 지도를 통해 현재의 광령천은 상류는 무수천으로, 하류는 도근천으로 불리었음을 확인하였다. 즉 한라산에서 발원하여 흘러내리는 동일한 하천이지만 상·하류에 따라 명칭이 서로 다르게 칭해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하류에 대한 상이한 명칭은 1936년 1월 이후 이 계곡이 광령천으로 지정 고시됨으로써 현재까지 광령천으로 불리고 있다.

한편 지금의 도근천은 조선시대 도근천과는 전혀 다른 하천으로, 한라산 어리목광장 동쪽의 물과 작은드레왓에서 발원한 물이 선녀폭포를 구비 돌아 해안 축산단지, 누운오름, 월산, 도평을 거쳐 도근교에서 어시천과 합류하고 바다로 흘러가기 직전 외도교 앞 광령천과 합쳐지는 하천을 지칭하고 있다.

5) 『해동지도』는 1750년경 제작된 지도로, 제7책에 제주도 지도가 수록되어 있다. 1709년 간행된 『탐라지도병서』를 채색을 가미하여 알아보기 쉽게 모사한 지도이다. 이 지도에 도근포는 ‘도근내포(都近乃浦)’로 표기되어 있다.

6) 『대동여지도』(1834년), 『동여도』(1800년대 후반), 『제주지도』(1872년)등 무수천이 표기된 지도에는 모두 ‘無水川’으로 기록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7) 『탐라지』에 수록된 이원진 목사의 시는 다음과 같다. “登高南嶽舉深觴 川上歸來興更長 滿眼黃花如昨日 一樽仍作兩重陽”

8) 『남사일록』(김익수 역, 제주문화원, 2001, 55쪽)



8 광령천
학술 탐사

광령천의 선사·역사유적과 유물

장 제 근
국립제주박물관

1. 머리말

제주도 한라산 Y계곡을 발원지로 시작하여 제주시 외도동 외도포구에 이어지는 길이 25km의 광령천(무수천)은 제주시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주도내 대규모 하천중의 하나이다. 광령천 주변은 행정구역상 제주시 외도동, 도평동, 해안동, 애월읍 광령리 마을로 구분되어 지는데, 이 일대에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유적과 유물이 밀집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다. 광령천의 하류인 외도천변을 따라 해발 90m에 이르는 고지대에 걸쳐서 유적이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외도동과 광령리 일대에 대규모 취락유적과 유물산포지, 지석묘군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는 제주도내에서 수량이 가장 풍부한 하천중의 하나인 외도천의 용수조건과 함께 양질의 미사질양토의 황색점토층이 두텁게 퇴적되어 적절한 토양조건을 갖추고 있고, 농경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일찍부터 대규모 취락이 형성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의 유적은 1985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의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통하여 확인되었는데, 선사시대 유적은 외도운동장 부지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구석기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찍개 1점을 비롯하여, 신석기시대 유물 산포지, 초기철기시대 유물산포지, 취락유적, 지석묘군 등이 있다. 역사유적으로는 고려시대의 사찰유적인 수정사지를 비롯하여 서천암지, 조선시대 건물지, 기와, 도자기 등의 유물이 있다.



사진 1. 광령천 하류와 한라산



사진 2. 광령천 주변 조사모습



지도 1. 광령천 주변 유적분포도
(문화유적분포지도 - 증보 제주시, 2011)

2. 선사 · 역사유적과 유물

2.1. 외도동 외도운동장부지내 유적¹⁾

제주시 외도천 하류의 해발 10~15m의 곡류지점인 외도동 220-1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2005년 외도운동장 조성을 위한 발굴조사에서 외도천의 범람에 의한 자갈층이 전면적으로 확인되며, 자갈층위에 형성된 점토층에서 문화층이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신석기시대 유물포함층을 비롯하여 초기철기시대의 석축유구, 구상유구, 수혈유구, 역사시대의 건물지, 석렬유구, 수혈유구 등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다. 신석기시대의 문화층에서는 화살촉, 석창, 격지 등의 석기와 고산리식 토기, ‘지(之)’자문토기, 점렬문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이와 함께 구석기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찻개 1점이 확인되었다.

탐라시대의 유구는 석축유구와 구상유구가 확인되었다. 하천의 용수를 사용하기 위한 배수시설 물로 추정되는 길이 84m, 폭 1.7m, 깊이 1.2m의 석축유구는 외도천으로 동서방향으로 길게 이어지는데, 석축의 단면은 ‘U’자형이며, 하천석을 5~7단 정도 쌓아 축조하였다. 내부에서는 적갈색경질 토기가 확인되는데, 그 중심 시기는 기원후 3세기를 전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려시대의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양질의 고려청자편과 기와편이 다량으로 출토되고 있어 주변에 위치했던 고려시대 사찰인 수정사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문화층에서는 건물지 관련시설과 함께 수혈유구가 확인되었는데, 10~12세기의 청자, 15~16세기의 분청사기 등이 출토되고 있어 외도운동장부지내 유적은 복합유적임을 알 수 있다.



사진 3. 유적전경



사진 4. 층위 단면 모습

1) 제주문화예술회관, 2007, 제주시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국립제주박물관, 2009, 섬, 흙, 기억의고리 -지난 10년간의 발굴기록-



사진 5. 외날찍개



사진 6. 화살촉, 석창, 격지



사진 7. 석축유구 모습



사진 8. 각종 토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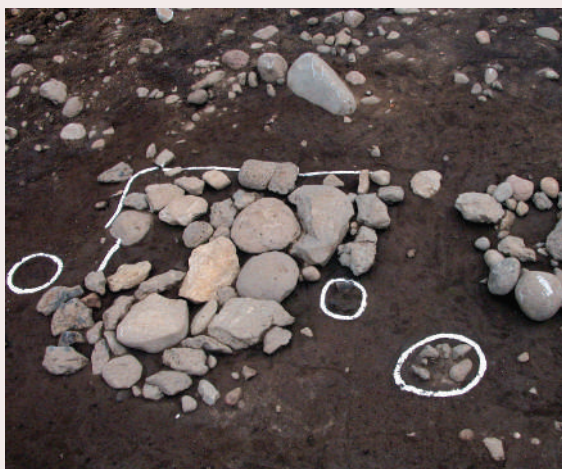


사진 9. 조선시대 유구모습



사진 10. 청자, 백자편

2.2. 외도동유적²⁾

제주시 외도1동 125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외도천과 도근천 주변으로 폭 넓게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외도천의 지류를 따라 길게 형성되어 있다. 유적이 집중적으로 형성된 곳은 해안에서 1.3km 정도 올라온 곳으로 해발 30m 정도의 넓고 평탄한 대지상에 밀집하고 있다. 수량이 풍부한 외도천을 따라 대규모 유물산포지와 지석묘군락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하귀리, 광령리유적과 함께 탐라시대 대규모 마을이 형성되어 있던 곳이다.

2002년 발굴조사 결과 유적에서는 주거지 2기, 수혈 48기(우물 13기 포함), 소토유구 3기, 구상유구 3기, 석축유구 2기, 석렬유구 2기, 매납유구 1기 등이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평면형태가 원형인 송국리형 주거지로 수혈내부 중앙부에 기둥을 올렸던 주혈 혹은 초석을 배치하고 중앙부에는 집수와 특수용도를 위한 수혈이 축조되어 있다. 또한 중앙부 수혈에서 벽구(壁溝)로 연결되는 십자, 혹은 방사상의 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전형적인 송국리형 주거지에서 발전된 양상이다. 이러한 형태의 주거지는 인근 애월읍 하귀1리 유적에서 조사된 바 있다. 한편 유적에서는 주거지와 함께 저장시설, 집수시설, 우물, 야외노지 등이 확인되었는데, 특정 수혈에서는 20여 개체분의 토기가 깨어진 상태로 발견되어 제의나 의례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출토유물은 적갈색경질민무늬토기, 손잡이토기, 회색연질토기, 회청색경질토기, 토제가락바퀴, 원판형토제품, 갈돌, 갈판, 오목돌, 대롱옥, 유리구슬 등이 있다. 유적의 중심연대는 기원후 3세기 경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진 11. 유적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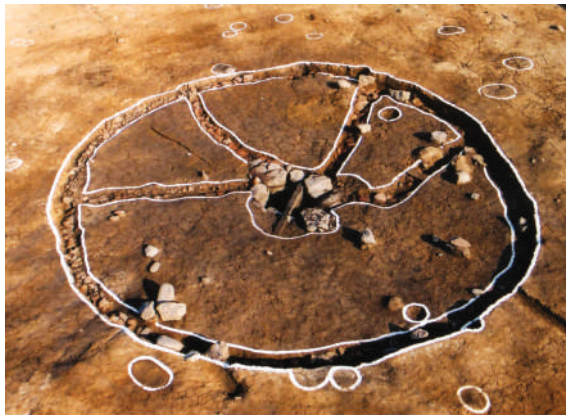


사진 12. 송국리형주거지 모습

2) 제주문화예술재단, 2005, 제주시 외도동유적

국립제주박물관, 2009, 섬, 흙, 기억의 고리 - 지난 10년간의 발굴기록-



사진 13. 주거지 내부



사진 14. 우물 모습



사진 15. 항아리



사진 16. 손잡이 항아리



사진 17. 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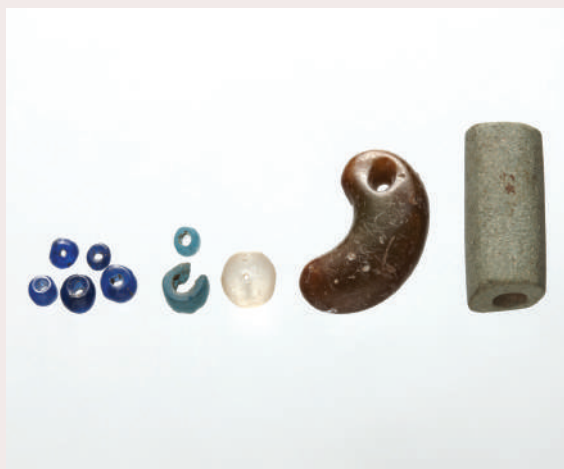


사진 18. 유리구슬, 곱은옥

2.3. 외도동유적 II³⁾

제주시 외도1동 132-1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광령리유물산포지와 지석묘군이 자리하고 있다. 유적은 외도동유적의 북쪽편에 해당되는 지점으로 외도동유적 2구역 주거지와 바로 인접한 곳으로 비교적 평탄한 대지상에 형성되어 있다. 2005년 발굴조사 결과, 수혈주거지 6기, 수혈유구 44기(우물지 3기 포함), 소토유구 9기, 매납유구 2기, 굴립주 건물지 1기 등이 밀집되어 확인되었으며, 외도동유적의 일부분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거지는 평면형태가 원형인 송국리형주거지로 내부에 주혈 또는 주초석을 설치한 형식과 별다른 시설이 없는 형식이 확인되었다. 이중 1호 주거지는 중앙을 중심으로 일자형의 구를 두고 구와 연결되는 벽구가 일부 잔존하고 있으며, 중앙부 수혈에 원형토기가 놓여 있고 수혈 외부에 주초석 4매가 배치되어 있어, 외도동유적 주거지와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주거지 내부에서는 토기 이외에 철제품이 30여점 이상 확인되고 석기가 집중되어 출토되는 주거지들이 있어 이들이 주거지의 기능 외에 공방의 기능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거지에서 확인된 봉상철기를 재가공하기 위한 시설로 추정되는 야외노지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다량의 철기와 함께 철기 제작 관련 유구가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 할 수 있으며, 석제도구들이 점차 외도동유적 취락단계에서 철기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출토유물은 적갈색경질민무늬토기, 손잡이토기, 회색연질토기, 회청색경질토기 등의 토기류와 가락바퀴, 원판형토제품, 곱은옥 등의 토제품, 흙돌, 갈돌, 갈판 등의 석기류, 철제화살촉, 도끼, 낫, 바늘, 손칼, 봉상철기 등 철제품, 유리옥, 대롱옥 등이 있다. 이외에 탄화된 조, 수수, 후박나무 열매 등이 다량으로 확인되기도 하였다.



사진 19. 유적전경



사진 20. 주거지 분포모습



사진 21. 유물 출토 모습

3) 제주문화예술재단, 2007, 제주시 외도동유적II

국립제주박물관, 2009, 섬, 흙, 기억의 고리 -지난 10년간의 발굴기록-



사진 22. 항아리



사진 23. 단지



사진 24. 주거지내부 철기 출토모습



사진 25. 철기류



사진 26. 가락바퀴



사진 27. 원판형 토제품

2.4. 지석묘(支石墓)

지석묘는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대표적인 무덤의 하나이다. 지석묘는 고인돌 또는 돌멘(Dolmen)이라고도 부르며 선돌(立石, 멘히어 Menhir)과 함께 선사시대 거석문화(巨石文化·巨石記念物)의 일종이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지석묘는 땅속이나 땅위에 돌로 시신을 안치할 석곽(石槨)을 만들고 그 위에 거대한 덮개돌(上石)을 올려놓은 형식의 무덤이다. 지석묘는 북유럽, 서유럽, 지중해 연안지역, 인도, 동남아시아, 일본, 중국 동해안지역, 그리고 우리나라 등 거의 세계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각 지역마다 형태가 조금씩 다르다. 아시아지역에서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전남지방에 집중적으로 밀집 분포되어 있다. 전남지방에서 지금까지 조사된 고인돌 수만도 1만6천여기 이상이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밀집 분포된 지역으로 주목된다. 이는 서유럽 전역에서 조사된 수가 총 5만여 기이고, 북한지역에서 가장 밀집된 황해도가 1천2백여 기이며, 전북지방에 1천8백여 기가 집중되어 있어 전남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고인돌이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우리나라의 지석묘는 크게 세 가지 형식, 즉 북방식, 남방식, 개석식으로 나누어진다. 북방식지석묘는 네개의 판석을 세워서 장방형의 석곽을 구성하고 그 위에 거대하고 편평한 돌을 개석으로 올려놓은 것으로, 유해가 매장되는 석곽을 지상에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 뚜렷한 특징이다. 북방식지석묘는 주로 한강 이북에 분포하고 있으며 평안남도과 황해도 지방의 대동강, 재령강, 황주천 일대에 집중되어 있고 평안북도와 함경도에는 분포가 드물다. 강원도 산악지대에는 고성과 춘천을 연결하는 북한강유역을 한계로 북방식지석묘의 분포가 끝난다. 서해안지대에서는 전라북도 고창에 까지 이르고 있으나 수원-용인을 연결하는 선 이남에는 거의 없다. 북방식 지석묘의 편년 및 연대에 대해 일치된 의견은 아직 없으나 하한에 대하여서는 북한지역에 철기가 들어오기 전, 늦어도 서기전 3세기 이전에는 소멸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남방식지석묘는 매장시설의 주요부분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우선 매장시설이 지상에 있는 북방식지석묘와 형태상으로 구분된다. 남방식지석묘는 바둑판식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판석, 할석이나 냇돌을 사용하여 지하에 석곽(石槨)을 만들고 개석과 석곽 사이에 3~4매 또는 그 이상의 지석이 있는 형식으로서 주로 전라도, 경상도 등 한강 이남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남방식지석묘는 청동기시대를 지나 초기철기시대의 서력기원 개시 전후까지 축조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개석식지석묘는 개석과 각종 지하 석곽 사이에 지석이 없이 개석이 직접 석곽을 덮고 있는 형식으로 무지석식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 개석식지석묘는 한반도 전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형식이다.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조사된 지석묘의 숫자는 200기를 넘지 못하나, 원래는 더 많았으리라고 추정된다. 제주도 지석묘는 석재(石材) 자체가 깨지기 쉬운 현무암돌이고, 지석묘가 위치한 곳 대부분이 후대의 마을이 들어선 곳과 중복되어 상당한 숫자가 훼손되었다고 보여 지기 때문이다. 대체로 해발 100m 미만의 해안지역에 밀집되어 분포하고 있으며, 해안에서 2km 내외의 구릉의 정상부나 구릉상 평탄대지에 주로 위치하고 있다. 주변은 유물산포지와 인접하는 곳이 많으며, 반경

1km 내외에는 하천이 형성되어 있다. 제주시를 비롯하여 서북부와 서남부에 주로 분포하고, 동남부 지역에는 일부, 동북부에는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한 구역에 5기 이상 분포하고 있는 주요 유적으로는 제주시 한천변의 용담동·오라동, 외도천변의 외도동·광령리, 대정읍 동일리 지석묘군이 있다. 제주시 삼양동(三陽洞) 지석묘는 너른 평탄대지에 3기의 지석묘가 있다. 독립적으로 1-2기가 발견된 곳은 안덕면 창천리의 단산아래와 제주시 도련동·도남동, 한림읍 옹포리, 우도(牛島), 서귀포 신예리·색달동 등에 있다.

제주도의 지석묘는 형식상 비탈면을 이용하여 매장시설의 일부가 지하에 존재하는 반지상형(半地上型)이 많은 편이다. 외형상의 형태, 특히 지석의 고임상태와 매장시설의 위치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대체로 6가지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음 표 1과 같다⁴⁾. 따라서 제주도 지석묘는 지하형과 반지상형, 그리고 지상형 등의 형식으로 대별된다.

표 1. 제주도 지석묘 형식 분류

형식	매장부의 위치	지석의 형태	상석의 형태
제1형식	지하	없음	판석형, 바둑판형
제2형식	지하	괴석형	바둑판형
제3형식	반지상	괴석형	아아치형
제4형식	반지상	괴석형 이중지석	부정형, 바둑판형
제5형식	반지상	괴석과 판석	부정형, 바둑판형
제6형식	지상	판석	부정형, 바둑판형

광령천 주변의 지석묘는 1985년도 외도천변의 외도동지석묘 조사에서 확인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이 지석묘는 상석 길이 204cm, 폭 134cm, 두께 77cm의 규모로 장축방향은 북동방향을 이루고 있으며, 석곽의 형태는 부정형으로 풍화암반층 위에 축조되어 있다. 내부에서는 광지리식토기가 소량 출토되었다⁵⁾. 1986년 지표조사 당시 외도동, 광령리 일대에는 대략 25기 가량의 지석묘가 분포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4~5기 가량이 훼손되거나 멸실된 상태이다⁶⁾. 이 중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기념물로 지정된 지석묘는 외도동에 5기, 광령리에 10기가 있는데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4) 이청규, 1995, 제주도 고고학연구, 학연문화사.

5) 제주대학교박물관, 1986, 제주도유적.

이청규 · 장제근, 1990, 제주시 고인돌 발굴조사, 제주시.

이청규, 1995, 제주도 고고학연구, 학연문화사.

6) 제주문화예술훈재단, 2002, 비지정 지석묘 지표조사 및 지석묘터 긴급수습조사-하귀, 광령, 옹포리 고인돌.

제주문화예술훈재단, 2011, 문화유적분포지도-증보 제주시-

표 2. 도지정문화재

종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지정일
기념물	2-11	외도지석묘 1호	제주시 외도1동 20-1	1990.05.30
	2-12	외도지석묘 2호	제주시 외도1동 20-3	"
	2-13	외도지석묘 3호	제주시 외도1동 23	"
	2-14	외도지석묘 4호	제주시 외도1동 28	"
	2-15	외도지석묘 5호	제주시 외도1동 29	"
	2-16	광령지석묘 1호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09-1	"
	2-17	광령지석묘 2호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11-1	"
	2-18	광령지석묘 3호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64	1990.05.30
	2-19	광령지석묘 4호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74	"
	2-20	광령지석묘 5호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77	"
	2-21	광령지석묘 6호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35	"
	2-33	광령지석묘 7호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825-1	2004.09.09
	2-34	광령지석묘 8호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824, 1824-1	"
	2-35	광령지석묘 9호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821	"
	2-36	광령지석묘 10호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65, 1666	"

* 제주특별자치도청 문화정책과 자료제공(2012. 12. 31 기준)

외도동, 광령리 지석묘는 외도천변(外都川邊)을 중심으로 밀집 분포하고 있으며, 하천 서쪽의 완만한 구릉 대지 위에 있다. 해안으로부터 거리가 2km 이상 떨어져 있으며 그 대부분이 직경 1km 이내의 범위 내에 20여기가 분포하고 있다. 지석묘의 형식은 제주시 한천변의 오라동, 용담동 일대의 지석묘군처럼 여러 형식이 존재하고 있다. 남방식과 개석식이 있으며, 그 외 제주도 특유의 형식이 있다. 그 중 상석이 아아치모양이거나 판석형 지석 형태의 지석묘는 다른 지방에서는 보기 어려운 형식으로 제주도에서만 보이는 특수형으로 제주도식 지석묘라 부르고 있다.

지석묘의 편년은 석곽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서 시기나 생활양상·의례과정을 추정할 수 있다. 대체로 의례용 유물은 석검, 석촉, 홍도, 채문토기, 청동기, 옥류 등이 있으며, 실생활 유물 가운데 피장자와 관계가 있는 생활유물인 석촉, 석도, 유구석부, 석착, 지석, 연석, 방추차, 어망추 등 다양한 석기류와 토기 파편들이 출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도에 조사된 지석묘와 관련된 유물의 양은 극히 빈약한 편이다. 지금까지 지석묘의 연대를 추정하는데 단서를 제공하는 유물은 광령리지석묘에서 많은 양이 출토된 직립구연(直立口緣)의 적갈색 발형토기(鉢形土器) 구연부편(口緣部片)이 있다. 이 토기들은 그 상한이 무문토기말기 단계에까지 소급될 가능성이 있지만, 한반도 지석묘의 중심시기가 무문토기시대 중기 이전인 것을 감안하면 시간적 차이가 많은 편이다. 그러나 삼양동유적에서 출토된 삼양동식토기 단계를 하나의 획기로 구분한다면 지석묘의 시기도 삼양동식토기 단계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고 하겠다. 현재까지 제주도에서는 삼양동유적 이전 단계로 추정되는 무문토기유적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지만, 지석묘와 관련된 유적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석묘를 축조할 때 가장 어렵고 중요한 작업은 상석의 채석과 운반이라 할 수 있다. 상석은 주변 산에 있는 바위를 그대로 옮겨온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암벽에서 떼어내서 다듬은 바위를 이용하고 있다. 암벽에서 상석을 떼어내는 데는 바위틈이나 암석의 결을 이용하여 인공적인 구멍에 나무 켄을 박아서 물로 불리어 떼어내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이용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흔적은 상석의 측면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구멍자국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증명된다. 이는 오늘날 석공과 같은 전문인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얻어진 상석은 사람들에 의해 지석묘를 축조장으로 옮겨지게 된다. 상석을 옮기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는가 하는 것은 거리나 상석의 무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실험고고학에 의하면, 1톤의 돌을 1마일(1.6Km) 옮기는데 16~20명이 필요하며, 32톤의 큰 돌을 둥근 통나무와 밧줄로 옮기는데 2백 명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있다. 상석을 운반하는 방법은 여러 개의 둥근 통나무를 깔고 상석을 옮겨놓아 끈으로 묶어 끈다거나 지렛대를 이용하는 방법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운반되어온 상석은 지상이나 지하의 석실 또는 지석에 적당히 흙을 경사지게 돋우고 그 위로 상석을 끌어올린 후 흙을 제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상석과 지석사이가 흙으로 메워져 있는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석묘의 운반과 축조에는 많은 사람이 동원되는데 적게는 50여명에서 많게는 2백~3백명 정도여서 당시의 지석묘사회에서는 거족적(擧族的)인 의례수행이었을 것이다. 인력동원에는 사회적 협력체계가 강력한 지배력이 있어야 하며 잉여생산물의 축적도 필수적이었을 것이다⁷⁾.



사진 28. 외도지석묘 1호



사진 29. 외도지석묘 2호



사진 30. 외도지석묘 3호



사진 31. 외도지석묘 4호

7) 국립제주박물관, 2001, 제주의 역사와 문화.



사진 32. 외도지석묘 5호



사진 33. 외도지석묘 6호



사진 34. 광령지석묘 1호



사진 35. 광령지석묘 2호



사진 36. 광령지석묘 3호



사진 37. 광령지석묘 4호



사진 38. 광령지석묘 5호



사진 39. 광령지석묘 6호



사진 40. 광령지석묘 7호



사진 41. 광령지석묘 8호



사진 42. 광령지석묘 9호



사진 43. 광령지석묘 10호

2.5. 유물산포지

2.5.1. 외도동 유물산포지 1~5지구⁸⁾

외도동 유물산포지는 외도운동장부지내 유적, 외도동유적, 외도동성지요양원부지내 유적 등을 중심으로 반경 1~2km 범위 안에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상 외도 1동에 위치하고 있다. 외도천변을 따라 해발 40m 정도의 평탄대지상에 걸쳐서 유물산포지가 분포하고 있으며 주변은 자연적인 방어조건인 하천과 협곡이 위치하고 있고, 사방을 조망할 수 있는 지형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유물산포지구는 모두 5개 지역에서 확인되는데 다음과 같다.

1지구는 외도동 절물마을 주거지역에서 남쪽으로 약 100m 올라온 지점인 ‘수정밭’ 이라 불리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지표상에는 고려시대 도자기편을 비롯하여 조선시대 분청사기편들이 확인되고 있다. 인근의 수정사지와는 다소 떨어져 있지만 관련된 건물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지구는 1지구 북서방향에 자리하고 있다. 해발 40m 정도의 언덕 위에 유물이 집중 산포되어 있다. 확인되는 유물은 토기류와 석기류이며, 토기류는 광지리식토기, 적갈색경질토기 등이 있다.

3지구는 외도천의 서쪽 평탄대지에 위치하며, 해안에서의 거리는 1.2~1.5km 정도이고 규모는 광령리 지경을 포함하여 10,000여평 정도이다. 유물산포지내에는 논밭과 샘물이 있으며 경작토로서의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4지구는 3지구 서편에서 확인되며 대부분이 경작지로 구성되어 있다. 외도동지석묘 2기가 유물산포지내에 위치하고 있다. 확인되는 유물은 석기보다 토기의 비중이 높으며, 광지리식 광구외반구연토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석기는 공이, 흙돌, 갈돌, 갈판이 대부분이다.

5지구는 유물산포지 3, 4지구에서 북편으로 200m 정도 떨어져 확인되며 해발 28m 정도이다. 대부분이 경작지로 구성되어 있다. 확인되는 유물은 적갈색경질토기류로 광지리식토기이며, 소량의 석기가 확인되고 있다.

2.5.2. 광령리 유물산포지 1, 2지구⁹⁾

광령리 유물산포지 1지구는 애월읍 광령리 1841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외도천을 따라 직경 거리 2km 정도의 범위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데, 유적의 범위 내에는 20여기의 지석묘군이 포함되어 있다. 확인되는 유물은 광지리식토기인 적갈색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등과 돌도끼, 자귀, 대패날, 공이, 흙돌, 갈돌, 갈판 등이 있다.

유물산포지 2지구는 애월읍 광령리 1678번지 일대에 해당되며 대부분 경작지로 구성되어 있다. 지표상에는 적갈색경질무문토기를 비롯하여, 타날문토기, 돌도끼, 공이, 흙돌, 갈돌, 갈판 등이 확인되고 있다.

8) 제주문화예술재단, 2011, 문화유적분포지도 -증보 제주시-

9) 제주문화예술재단, 2011, 문화유적분포지도 -증보 제주시-

2.5.3. 광령리 유물산포지

금번 조사에서 새로 확인된 유물산포지로 광령리 무수천 제2교 바로 아래 서쪽 평탄 대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해안에서 약 3.2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해발 100m 정도의 평탄한 지형에 해당되며, 현재 광령천의 독을 경계로 맞닿아 있으며 감굴과수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유물은 과수원의 지표에서 소량 수습되었는데 그릇 표면에 식물채흔이 있는 신석기시대의 고산리식토기편과 적갈색경질토기편, 조선시대 분청사기, 백자편 등이 있다. 이중 고산리식토기편은 저부와 동체부의 작은 파편이긴 하나 토기 내, 외면에 식물체가 타서 없어진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사진 44. 유물산포지 전경



사진 45. 신석기시대 토기편



사진 46. 분청, 백자편



사진 47. 백자편

2.5.4. 도평동 유물산포지¹⁰⁾

도평동의 평탄 대지상에 위치하며 대부분 감굴과수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유물은 토기편만이 소편 상태로 일부 확인되는데, 토기는 모두 광지리식토기이다. 일부 공이 등의 석기가 확인되고 있다.

10) 제주문화예술재단, 2011, 문화유적분포지도 -증보 제주시-

2.6. 불교문화(佛敎文化)

제주도에서 전해지는 「당(堂) 오백 절(寺) 오백」이란 말과 같이 제주도에는 마을과 집안의 안녕을 기원하였던 신당과 사찰이 많았다. 이들 사찰 중 대표적인 것은 법화사(法華寺), 수정사(水精寺), 원당사(元堂寺), 존자암(尊者庵) 등을 들 수 있으며, 고려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에는 정종원년(1034년) 이후에 탐라인이 개경의 불교행사인 팔관회에 참석하였고, 문종 11년(1057년) 육지의 사찰창건에도 탐라인(耽羅人)이 동원되었던 기록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에 사찰이 세워지는 시기는 법화사지와 수정사지에서 발견되는 고려시대의 해무리굽 청자편으로 보아 9-10세기경으로 보인다. 이들 사찰지에서 발견된 최상급의 청자편인 점에서 당시 사찰문화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충렬왕(1275-1308) 무렵 활동한 혜일(慧日)스님은 묘연사, 서천암, 보문사, 법화사 등에 대한 찬시(讚詩)를 남기기도 하였으며, 충혜왕 4년(1343년) 왕사를 역임한 흑선과 충목왕 4년(1343년) 승려 중범이 탐라에 유배되기도 하였다.

광령천 주변의 불교유적으로는 수정사지, 서천암지, 광령리 절동산 절터 등이 있다. 수정사지는 제주시 외도동 499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수정사(水精寺)는 고려시대에 창건되어 조선시대까지 존속했었고, 조선 초에는 130여명의 노비를 갖는 비보사찰로 법화사(法華寺)에 이어 그 규모가 매우 큰 사찰이었다.

수정사의 창건은 정확하지 않으며, 제주가 원의 간섭을 받고 있던 시기에 원에 의해 창건되었다는 설과, 삼별초를 토벌하기 위하여 몽고가 제주에 들어오기 이전인 13세기 중엽 이전에 원과 관계 없이 창건되었다는 두 가지 설이 있다. 이후 수정사가 1521년(중종 16)에 중수되었다는 사실이 충암(沖庵) 김정(金淨)의 「도근천수정사중수근문(都近川水精寺重修勤文)」에서 확인되었고, 1694년(숙종 20) 이전에 폐사되었다.

1987년 수정사지 일대에 대한 지표조사로 지름 2m 정도의 대형 초석과 각종 유물들이 보고되었고, 1998년 시굴조사와 2000년 발굴조사를 통해서 건물지 12동, 도로와 보도, 탑지, 석등지, 담장지, 폐와무지, 적석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9-10세기 순청자에서 18세기 중엽의 백자류까지 끌고루 출토되었으며, ‘만호(萬戶)’ 명의 명문기와 연판문막새 등도 출토되었다. 특히 금동제품과 인왕상(仁王像)이 음각된 탑지 면석과 우주석 등 다량의 탑지 부속구가 출토되었다.



사진 48. 수정사지 항공사진



사진 49. 수정사지 석탑재 출토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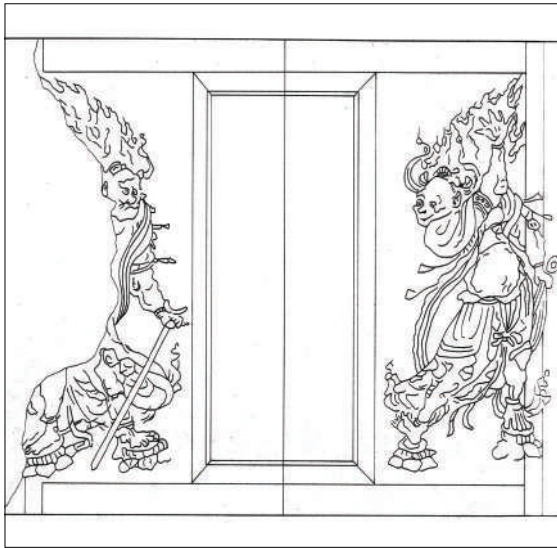
사진 50. 청자, 백자



사진 51. 수막새



사진 52. 석탑부재(면석, 인왕상)



도면 1. 석탑부재 실측도



도면 2. 수정사지 다층석탑 복원도

서천암지(逝泉庵址)는 제주시 도평동 2278-2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이곳은 ‘절왓’, ‘고불왓’ 등으로 불리는 곳으로 서천암이라는 암자가 있었던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은 과수원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지표상에는 다량의 도자기편과 기와편이 산포되어 있다. 이원진의 『탐라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재조공천상(在朝貢天上)’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사진 53. 헤일선사 서천암 시비



광령리 절동산 절터는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309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광령초등학교 서쪽500m 정도 떨어진 지점인 이곳은 향림사가 들어서 있다. 예로부터 ‘절동산’ 이라 부르는 곳으로 인근 과수원에는 도자기편과 기와편이 분포하고 있다.

3. 맺음말

이상과 같이 광령천 일대의 지표조사와 기존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선사·역사유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광령천 일대에는 구석기시대 추정 석기를 비롯하여 신석기시대에서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적들이 지속적으로 형성되었던 곳이다. 신석기시대 유적은 2005년 발굴조사된 외도운동장부지내 유적과 이번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유물산포지 인데 직선거리로 약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당시 신석기인들이 하천변을 따라 생활하였음을 추정해 볼 수 있으며, 광령천 일대가 이른 신석기시대부터 삶의 터전으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2, 2005년 유적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외도천을 중심으로 외도동, 광령리 일대에는 탐라시대 대규모의 마을유적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 시기의 제주도내 마을들은 대개 해안과 가깝거나 하천이 흐르는 평탄한 구릉에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물을 얻거나 생업활동에 유리하고 외부와의 물자교류가 쉽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기 사람들은 둥근형태의 구덩이를 파서 기둥을 올린 ‘송국리형주거지’를 축조하였다. 한반도 남부지역에서는 이미 송국리형 주거지가 사라지는 때이지만 제주에서는 오히려 활발하게 축조되고 있어 한반도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외도동유적은 기원후 2~3세기대의 주거양상을 연구하는데 있어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으며, 제주도내에 동시기의 마을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용담동유적, 광지리패총유적 등과의 상호 연관성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구의 공간분포와 마을의 규모를 볼 때, 당시 중심 거점마을 역할을 했으며 많은 인구를 통솔하는 지배자의 존재와 마을의 방어체계를 갖고 있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주변에 위치한 외도동과 광령리 지석묘군은 마을유적의 공동묘지인 무덤공간으로 활용되었음을 이해할 수가 있다.

참고문헌

- 국립제주박물관, 제주의 역사와 문화, 2001.
- 국립제주박물관, 섬, 흙, 기억의 고리 -지난 10년간의 발굴기록-, 2009.
-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시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3. 제주시 외도운동장 조성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007.
-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유적분포지도 -중보 제주시-, 2011.
- 이청규, 『제주도 고고학 연구』, 학연문화사, 1995.
-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시 외도동유적, 2005.
- 이청규, 제주의 선사문화, 제주대학교박물관, 1986.
- 이청규, 제주도 지석묘연구(1)-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 지석묘군, 탐라문화4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 이청규·장제근, 제주시 고인돌 발굴조사, 제주시, 1990.
- 외도동향토지편찬위원회, 외도동향토지, 2005.
- 제주대학교박물관, 수정사지, 2000, 1998
-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도유적, 1986
- 제주대학교박물관, 수정사·원당사 지표조사 보고서, 1988